



2025. 1. 19 (월)

트럼프 유럽 추가 관세 부과 예고

- 트럼프, 그린란드를 미국이 '구매'할 수 있을 때까지 유럽 관세 단계적 인상 발표
- 유럽 8개국 수입품에 2/1부터 추가 10% 관세, 6/1부터 25% 상향
- 유럽은 표면적 명분인 '對러/중 공동의 안보'보다 '미국의 영토확장'의도로 해석
- 관세 우려 재점화, 이는 내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토 문제라면 새로운 프레임

글로벌 투자전략-선진국

Analyst 황수욱

soowook.hwang@meritz.co.kr

미국 동부시간 기준 1월 17일 토요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할 수 있을 때까지 유럽 동맹국들에게 추가 관세를 단계적으로 올려 부과하겠다고 발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등 핀란드 8개국, 군대를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기존 관세(유럽산 수입품 기본 15%, 영국산 대분 10%)에 추가 10%, 6월 1일부터는 추가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는 것

유럽에서는 '안보보다 영토 확장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중. 트럼프는 그린란드가 전략적 위치와 광물자원 때문에 미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거듭 주장해왔음. 그런데 이미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가 있고 1951년 협정으로 미국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원하는 만큼 병력을 배치할 수 있음

유럽에서의 반발. 당사자인 덴마크 외무장관은 발표가 뜻밖이라는 취지로 반응. 영국 스타머 총리는 동맹국에 관세로 압박하는 것은 완전한 잘못이라고 취지로 공개 비판, EU 집행위원장, 상임의장은 덴마크/그린란드에 전적인 연대 표명, 관세가 대서양 관계를 해치고 위험한 하방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 이번 위협이 작년 미국과 EU/영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기존 관세 틀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등장

미국 내에서도 논란. 트럼프는 발표 전날에도 관세 아이디어를 꺼냈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음. 또한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과 적법성 관련 쟁점이 아직 심의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

협상의 도구로서 관세 역할 재확인. 미국 입장에서 관세의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일부 확인(인플레이 제한적, 관세 세입 효과)되었다는 점에서 관세 자체로 위협자산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다만 '영토 분쟁'이라는 새 프레임라면 사안 자체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

표1 트럼프 그린란드 관련 관세 부과 언급 이후 주요 이벤트 타임라인

날짜	주체	이벤트	내용
1.17	트럼프	추가 관세 예고	미국 그린란드 '구매'할 수 있을 때까지 8개국 대상 2/1부터 추가 10%, 합의 없으면 6/1부터 추가 25% 상향
1.17	덴마크/그린란드	시위/여론 격화	덴마크, 누크 등에서 반발 시위 확산
1.18	EU 지도부	단결/공동 대응 메시지	주권 수호, 위험한 악순환 경고 등 공동 톤 형성
1.18	EU 집행라인	보복 검토 본격화	프랑스, 독일 블랙메일 규정, EU 반강압(ACI) 등 미사일 수단 거론, EU 대사급 긴급회의 소집
1.18	EU	보복 패키지 시나리오 부상	외교적 해법 우선, 2/1 실제 발효시 930억유로 규모 보복안 재가동 가능성 언급, 1/22 EU 정상 특별회의 관측
1.18	미국 베센트	대유럽 메시지 + 美 내부 반발	베센트의 '유럽의 약함' 발언 등으로 논쟁 확산, 미국 의회 내에서도 견제/비판 공개화
1.19~	유럽 의회	EU-미국 무역 합의 표류 가능성	유럽의회 EU-미 무역합의 관련 절차 표결(1/26~27) 중단 가능성 부각

자료: 언론 보도 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